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축사진은 건축물들을 기록하고 표현해 주는 시각 언어이다. 그렇다고 건축사진이 단순한 건축물 외관의 복제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건축을 표현한다는 것은 기존의 입체적인 건축물을 평면에 의해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진을 찍는 일은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임과 동시에 사진가의 주관적인 해석과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건축사진은 실체적인 것이며, 동시에 거기에 존재하는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사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그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되었다.

건축물을 체험하는 행위는 단순히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건축공간에 실제로 들어가 보고 기대어 봄으로써 그것을 살아있는 감정으로 느끼는 행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진은 존재하는 대상만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존재를 어떻게 추상적이고 평면적인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진은 그 리얼리티를 갖게 된다.

건축사진가는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진에 나타나는 것은 건축의 현실이 아니라, 사진가의 기술과 감성에 의해서 창조된 또 하나의 사진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진은 그 자체가 독립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사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건축물은 입체적인 공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평면적인 변형을 거쳐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의 극히 일부분만을 체험할 뿐이며 그렇게 해서는 건물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은



포스코센터 전경. 일몰시에 촬영한 것과 밝은 대낮에 촬영한 것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드러나고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살아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손에서 벗어 났다고 해서 그 건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건물의 개념은 것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체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건축사진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인 건물을 선택해서 그 한정된 피사체를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건축사진은 고 건축과 현대건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단순한 기록과 설명적인 것에서부터 건축학이나 또는 미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진과 관련된 동기와 목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좋은 건축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 빛의 흐름과 건축의 설계 의도 그리고 공간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의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좋은 건축사진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준 건축사가 되어야 한다.

건축에는 공간적인 요소들을 이루는 여러 형태의 점, 선, 면들이 있지만 천장이나 벽으로 둘러 쌓인 공간을 어떻게 카메라에 찍어야 하

는지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림이나 회화들과 같은 미술작품이나 투시도, 조감도 같은 평면적인 것들은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준공된 건물이나 주택 등 입체적인 형상들을 사진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건축물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정지된 물체이기 때문에 빛의 흐름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건축물들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들의 배치와 주변 환경들과의 조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은 건축사진을 만들 수 있다.

건축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자세가 있다.

첫째, 주제가 되는 건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건축관련 잡지나 유명 건축사들의 작품집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살려주는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입체적인 건축물들의 공간적인 요소나 질감들을 표현해 준다.



1. 일산목조주택 외부 전경사진
2~3. 서울역사박물관 외부 전경사진 촬영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이레벨이나 조감적인 촬영이냐에 따라 박물관건축의 특징적인 톤라이트들이 표현된다.

셋째,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들을 촬영하기 위해 현지에 갔을 때 언제나 좋은 날씨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흐린 날씨나 예기치 않은 기상의 변화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끈기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씨와는 상관없이 일몰시에 촬영하는 방법도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축사가 의도한 건축계획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건축사의 입장

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찍기 위해서는 대형카메라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또한 PC(Perspective Control)렌즈는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건물의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㉟